

해설 프로그램-자연해설(아고산대 야생화를 찾아서)

1. 목적 및 배경

- 무분별한 탐방행태를 자연친화적 행태로 전환하여 탐방문화를 개선하고, 그 속에서 공존을 위한 생태 윤리적 의식 함양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일반해설
- 프로그램명 : 아고산대 야생화를 찾아서
- 대 상 : 전 연령, 50명
- 운영기간 : 연중, 10시/14시
- 운영형태 : 1시간30분/회
- 장 소 :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 일원
- 주요내용 : 아고산대 기후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야생화 이야기, 덕유산의 깃대종 구상나무에 대해 알아보기, 향적봉 적상에서 바라본 경관 해설
- 소요예산 : 1백만원
- 참 가 비 : 무료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홈페이지 공고, SNS홍보 등
- 참가자 접수 방법 :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예약 및 유선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페이스 북 홍보(4월~10월, 2회), 보도자료 제공(2회)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첨부 1.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2.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아고산대 야생화를 찾아서

활동장소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일원
소요시간	90분
참가대상	학생 및 일반인(제한없음)
참가인원	20명 / 해설사

활동목표

- 아고산대 특성과 덕유산의 깃대종, 야생화 등을 주제로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백두대간의 생태적 특성과 보존 의식을 함양한다.
- 무분별한 탐방행태를 자연친화적 행태로 전환하여 탐방문화를 개선하고, 그 속에서 공존을 위한 생태 윤리적 생각을 가진다.

준비물

- 구급약, 놀이 및 시청각 교구재, 카메라, 휴대용 마이크 등

유의사항

- 해발 1,520m~1,614m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옷차림에 유의한다.
- 탐방로에 들어가기 전 안전 및 주의사항을 숙지한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유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인원 확인 및 건강상태 확인 - 덕유산국립공원 이야기 -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2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고산대 야생화를 찾아서 - 아고산대 기후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야생화 이야기 및 생존전략 알아보기 • 덕유산의 대표나무, 주목과 구상나무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사라져가는 대표적인 나무, 주목과 구상나무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 생각해보기 • 크리스마스트리로 이용되는 한국 특산종 “구상나무” - 덕유산의 깃대종, 구상나무에 대해 알기 - “깃대종을 이겨라!” 자연놀이를 통해 알아보는 구상나무 생태 이야기 • 백두대간의 훼손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 백두대간의 일부에 포함되는 중봉 능선 감상 및 향적봉 정상에서 바라본 경관 해설 	6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내용 및 “공존”에 대한 느낌 나누기 • 설문 및 평가를 통한 마무리 인사 	10분

시나리오

덕유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덕유산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자연을 느끼고, 여러분과 함께 할 자연환경해설사 ooo입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가슴을 펴고, 양 손을 벌려 시원한 바람을 맞아볼까요? 파란하늘과 햇살, 청량한 바람이 기분 좋게 우리에게 쏟아지는 듯합니다. 오늘 함께 할 프로그램은 “향적봉 아고산대 야생화를 찾아서”입니다. 여기 보이는 설천봉에서 향적봉구간 탐방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길이는 약 600m, 이동시간 포함하여 9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부터는 산행 전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실시)

몸에 근육이 좀 풀린 것 같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탐방프로그램을 시작 전에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합니다. 탐방로 주변에는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낮에는 사람들의 힐링의 장소이지만, 밤이 되면 동물들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두 번째, 큰소리를 내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자연과 동물을 배려해주세요.

세 번째, 프로그램 시작 전 몸이 안 좋거나, 다치게 되면 여기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조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덕유산국립공원 소개

지금 여러분들이 서있는 이곳은 덕유산국립공원입니다. 혹시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나요?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자연 생태계와 자연, 문화 경관지를 선정하여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67년 지리산이 첫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2016년 22번째 태백산국립공원까지 산악형 18개, 해안형 3개, 사적공원 1개로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2개도(전북, 경남), 4개군(무주, 장수, 거창, 함양)에 걸쳐 있으며, 1975년 2월 1일 우리나라 10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덕유산의 원래 이름은 광여산(匡廬山)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화를 피해 이곳으로 피신해 왔었는데, 신기하게도 왜병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면 짙은 안개가 드리워 산 속에 사람들이 숨어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안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화를 면할 구 있었던 광여산의 신비로움에 사람들은 큰 덕이 있는 산이라 하여 큰 덕(德), 넉넉할 유(裕)자를 써서 덕유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에 이름의 유래는 예로부터 은은한 향기가 그득히 쌓여있는 봉우리라고 해서 향적봉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향적봉 아고산대 야생화 이야기

고산대란 해발 고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1,500~2,500m)으로서 바람과 비가 많고 기온이 낮으며, 맑은 날이 드물어 키가 큰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없는 곳으로 철쭉, 진달래, 조릿대, 원추리 등 야생화들이 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자연과 균형을 이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대를 말합니다. 고산대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곳으로, 비슷할, 다음 가는 '아(亞)'를 써서 아고산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고산대는 확 트인 뛰어난 조망과 각가지 야생초와 서늘한 기후 등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탐방객들에 의하여 훼손될 경우 자연적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우리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곳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고산대는 백두산 정상에 넓게 분포하고 지리산 노고단, 소백산 비로봉, 설악산 대청봉 주변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덕유산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중봉(1,592m)이고, 이곳에서 내려다보이는 덕유평전은 아고산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봄철의 철쭉, 진달래 군락과 여름철의 원추리 군락은 경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방로 주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키 큰 나무들이 거의 없죠? 이것 역시 아고산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고도가 특히 높은 곳에는 기온 강하가 심하게 일어나 키 큰 나무들은 사라지고, 대신 키가 작은 관목들이 나타나는 경계를 볼 수 있습니다. 고산지역은 기온이 너무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키가 큰 나무(교목)가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산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꽃들은 저지대에서 자라는 꽃들에 비해 유난히 아름다운 색상과 진한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열악한 기후조건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몇 센티미터 밖에 자라지 않으며, 꽃의 개화기간도 아주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꽃이 피어 있는 짧은 기간 동안 수분이 되어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곤충을 유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꽃은 최대한 몸치장을 하여 곤충을 유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봄 철 만나 볼 수 있는 아고산대의 야생화는 노랑제비꽃, 진달래, 철쭉이 있습니다. 여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4~5월 고개를 내밀고 활짝 피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노랑제비꽃입니다. 제비꽃은 도감에 나와 있는 종만 해도 약 40여 가지가 되며, 그 중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꽃도 있고, 이렇게 높은 산이나 깊은 산속에만 얼굴을 보여주는 제비꽃이 있습니다. 노랑제비꽃은 깊고 높은 산에서만 볼 수 있는 제비꽃이며, 꽃 색깔이 노랗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아직은 덕유산에 이른 봄, 주변에 푸른 빛이 돌기 시작할 때 화사한 노란빛을 내며 새 생명의 에너지를 내고 있어 "수줍은 사랑"이 꽃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사랑스런 흥조 띤 얼굴색과 같은 꽃이 있습니다. 바로 진달래와 철쭉입니다. 진달래는 꽃이 핀 다음에 잎이 나오고 또 제일 먼저 꽃이 피지만, 철쭉은 꽃과 잎이 거의 같이 피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은 연한 분홍색이어서 색이 연한 진달래 또는 진달래와 연이어서 핀다하여 철쭉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꽃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서서는 그 모습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가까이와서 보도록 할게요. 허리를 숙이고,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꽃모양이 특이하죠? 꽃 모양이 여성들이 시집갈 때 쓰는 족두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족두리풀이라고 불립니다. 하늘을 향해 피는 꽃과 달리 잎 아래, 흙과 가까이에서 꽃이 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꽃이 낙엽 속에 묻혀있거나 땅에 바짝 붙어서 피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꽃을 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 벌과 나비에 의한 수분은 별로 기대할 수 없겠죠? 땅위를 걸어 다니거나 똥이나 썩은 물질을 좋아하는 버섯파리류나 개미 등 땅위를 기어 다니는 곤충들에게 의지하며 수분을 합니다. 족두리풀은 나름 생존전략을 펼친 생태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야생화 중 하나인 원추리는 백합처럼 생긴 꽃이 날마다 피어 하루 만에 진다고 해서 “데이 릴리”라고도 부르며, 백합과 비슷한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근심을 잊게 하는 풀’이라는 뜻으로 망우초라 부르기도 하는데, 마냥 바라만 봐도 걱정이 사라질 만큼 꽃이 아주 예쁘다는 말입니다. 봄철 워낙 일찍 새싹이 돋아나기 때문에 중요한 식용식물로 여겨왔습니다. 지방에 따라 ‘넙나물’이라 하는데 한자어로는 ‘넓은 나물’을 뜻합니다.

덕유산 정상과 덕유평전의 주능선에 때가 되면 한껏 원추리가 피어납니다. 덕유산에 오르는 여름 산행에서 우리는 높은 산중에 자생하고 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멋진 야생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초여름엔 낮은 산지에서 늦여름에는 높은 산지에서 운무와 더불어 만날 수 있는 주황색과 노란색의 원추리입니다. 그 모양새가 꼭 나리꽃처럼 생겨서 더욱 우리들에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 원추리는 땀 흘려 힘들게 산에 오르는 탐방객분들을 환하게 반겨줍니다. 다른 풀들보다 키가 큰 편이라 원추리가 필 즈음이면 산능선이나 초원이 온통 노란 물결로 일렁여 탐방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는 야생화이기도 합니다.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이 불며, 습도가 높고 맑은 날이 적어서 식물들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 아고산대라고 이야기했었죠? 향적봉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키가 큰 나무들은 자라기 힘든 반면, 나무들에 의해 햇볕을 잘 받지 못 하는 야생화들에게는 큰 나무들에 의해 햇볕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 천국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야생화가 아무리 햇볕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살아가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향적봉의 야생화들은 피는 시기가 매우 짧습니다. 식물들이 꽃을 피워 종자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종족을 번식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수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향적봉의 야생화들은 대부분 곤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화려한 색깔의 꽃을 피우는 야생화들이 많은 것입니다. 흰색은 물론 노란색, 보라색, 자홍색 등 갖가지 색으로 피어나는 야생화들로

아고산대 지역은 야생화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어렵게 만든 향긋한 꿀을 아무 도움이 안되는 곤충에게 빼앗길 수 없어 다양한 모양의 꽃을 피워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곤충을 유인합니다.

살아 천 년! 죽어 천 년! 붉은 나무 “주목”이야기

덕유산을 대표하는 나무는 바로 구상나무와 주목입니다. 구상나무는 덕유산의 깃대종, 주목은 덕유산의 상징목입니다. 덕유산에서 균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나무들입니다.

주목은 수피가 붉다하여 ‘붉을 주(朱)에 나무 목(木)’을 써서 주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변 다른 나무의 색을 살펴봤을 때 갈색과 회갈색을 띤 다른 나무들보다 붉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시나요? 비가 온 날이나 습도가 높은 날일수록 붉은 빛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살아 천 년! 죽어 천 년!” 이란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주목을 두고 한 말입니다. 주목은 성장속도가 매우 느려 1년에 1~2mm정도 밖에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주목은 목질이 매우 단단하여 바둑판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며, 가을에 앵두 같은 빨간 열매가 열립니다. 이 열매에는 ‘택솔’이라는 암치료 성분이 추출되어 약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독성이 있어 옛날에는 사약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전 덕유산에는 주목이 많이 자생했으나, 1960년대 후반에 불법 벌목으로 많은 개체수가 벌목됨에 따라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6·25 이후 덕유산 정상에 통신부대가 생기면서 부대의 전파방해 및 부대의 안전을 위해 주목을 많이 베어내고, 불을 내기도 했습니다. 향적봉 ~ 중봉 사이를 가다 홀로 서있는 주목 밑을 깊숙이 파보면 아직도 따고 남은 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로 사랑받는 한국 특산종 “구상나무”이야기

여기서 보이는 저~ 나무 보이시나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12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용되는 나무입니다. 바로 덕유산의 깃대종이자, 한국 특산종인 “구상나무”입니다. 여기서 깃대종이란? 유엔환경계획이 만든 개념으로,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동·식물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종을 말합니다.

구상나무는 한라산과 지리산, 덕유산 등 비교적 높은 곳에서 소규모로 자생하고 있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약 100년 전 독일로 건너가 개량되어 현재 크리스마스트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로열티를 주고 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상나무의 서식처가 갈수록 좁아져 유전자 근친교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얼마 못가서 구상나무가 멸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상나무는 천근성(淺根性)식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뿌리가 땅 속 깊숙이 뻗지 못하게 옆으로 길게 뻗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덕유산의 구상나무는 한 겨울 눈이 내린

이듬해에 말라 죽는 개체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찬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서 나무를 뒤덮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뽑혀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은 나무들은 곧바로 쓰러지지 않고 곳곳하게 버티어서 천고(千古)의 세월동안 비바람에 씻기고 폭풍에 흔들리며 결국은 앙상한 가지만이 남게 되는 것 이죠.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나무인 만큼 더욱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상나무만을 지키는 것은 구상나무뿐 아니라 구상나무를 포함한 그 환경, 더 나아가 자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니, 우리 모두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구상나무와 주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는 이 나무를 이용해서 자연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깃대종을 키워라”입니다. 덕유산의 깃대종인 금강모치와 구상나무를 이용한 놀이인데, 향적봉에서는 구상나무를 이용하여 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주변에 떨어진 열매나 나뭇가지를 하나씩 주워볼까요? 동그란 열매도 좋고, 조그맣게 떨어진 나뭇가지도 좋습니다. 여기 천에 올려놓고 구상나무 한그루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목천에 그려진 구상나무가 보이시죠? 여기엔 금강모치와 주목, 구상나무 그림이 섞여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운 주목과 구상나무에 대해서만 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많이들 헛갈려하는 나무지만, 우리는 해설을 들으면서 와서 주목과 구상나무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죠? 구상나무의 씨앗부터 나뭇잎, 열매 성장과정을 조금 전 준비한 자연물(열매)를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건데요, 각자 광목천 끝을 잡고 균형을 맞춰 자연물을 굴리면서 구상나무에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해 씨앗에서 한 그루의 구상나무로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놀이 진행)

어떤가요? 생각보다 천적을 피해, 지구의 온난화를 피해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혼자서만 잘하려고 하면 잘되지 않습니다. 한명, 한명이 모여 모두의 힘을 합쳐 놀이를 진행했을 때 온전한 구상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볼까요? 작은 나무, 야생화, 그리고 여러 생명들이 함께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자연 속 수 많은 생명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힘든 여정을 통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상나무 한 그루를 지키는 것이 자연을 지킨다는 말..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구상나무를, 더 나아가 자연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자연놀이를 통해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던 길을 잠깐 멈춰보았습니다.

백두대간의 훼손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자, 정상인 향적봉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 마시고, 내뿜고, 또 크게 들

이마시고, 내뻗고~ 시원한 바람이 가슴 속 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크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정상인 해발 1,614m에서 보이는 경관을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중봉 뒤쪽 방향으로 보이는 산이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지는 산' 바로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 1호인 지리산의 천왕봉이 보입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히게 되면 옛날 가야국이 있던 지역에서 가장 높고 훌륭한 산인 '가야의 산' 가야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닭 벅을 쓴 용의 형상을 닮은 계룡산까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덕유산은 백두대간을 거쳐 가는 8개의 국립공원 중 7번째인 산으로 주능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백두산에서 비롯된 큰 산줄기'라는 뜻으로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산줄기를 말합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1,400km이고, 남한 구간(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지리산 천왕봉)은 684km까지를 말합니다. 덕유산은 백두대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뼈재(신평령)로 시작하여 지봉~무룡산~남덕유산~서봉으로 해서 육십령까지 이어지는 약 27km가 포함되어 있으며, 3개의 개방 탐방로가 있습니다. 백두대간에 덕유산의 주능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지는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토양이 얼고 녹는 일이 되풀이되고 또 여름의 집중 호우와 봄 가뭄의 영향으로 토양유실과 침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원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생태 복원은 장기간에 걸쳐 자연 스스로의 힘을 이용하여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때 복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생태 복원이 이루어진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보완 작업을 할 때에만 복원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고산대의 특성상 훼손될 경우 자연적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함으로 탐방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덕유산국립공원의 아고산대 지형을 함께 걸어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설천봉에서 향적봉 탐방로를 걸으며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대답유도) 네. 맞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각자의 느낀 점은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 것이 자연이 주는 신비로움 중 하나라고 생각이됩니다.

고은 시인의 시 "그 꽃"도 자연이 주는 시각의 변화에서 발견한 자연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연은 날씨에 따라, 그날의 기분에 따라 본 모습을 달리 보여주는 듯 합니다. 향적봉에서 바라보는 아고산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렇듯 소중한 백두대간과 아고산대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답)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어려운 일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작은 관심에서 부터 자연을 지키는 큰 힘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번 더 자연을 돌아봐주세요. 우리가 소중하게 지킨 이 자연은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고,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계의 비경이 살아있는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자연환경해설사 ooo입니다. 오늘도 자연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고산대의 야생화 (봄, 여름철)

<현황사진>

